

대한 응급의학회

12대 이사장 후보



김인병

경력

학력

- 2009. 8.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 2001. 8.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학 석사)
- 1992. 2.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사)
- 1997. 응급의학과 전문의 (69)
- 2009. 중환자 의학 세부전문의

경력

- 현)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 현) 대한재난의학회 이사장
- 현)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센터장
- 현)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 미래연구소장
- 현) 대한 중환자의학회 대의원
- 전)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주임교수 2003.3 ~ 2013. 2

자기소개서

- 저는 1992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3년 부터 연세의료원 영동세브란스병원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한식 교수)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여 1997년 2월 응급의학과 전문의 (69) 자격을 취득 하였습니다.
- 전공의 시절, 응급의학과 전문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노력을 옆에서 보면서 전공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설과로 PSVT 환자에게 심장내과 허락 없이 adenosine을 주었다고 과장님이 병원 당국에 불려가시고, 복통환자에게 외과 허락 없이 진통제 주었다고 외과 선배한테 혼나고, central line 을 외과 환자한테 했다고 너가 수술하라고 하는 등 현재의 응급의학과 진료 역량과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우리의 선배님들과 현재의 우리가 만들어낸 응급의학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2000년 4월 공군 군의관 전역 후 5월부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김경환 교수)에서 임상 강사를 시작하였으며, 처음으로 학회 정보위원으로 학회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2003년 3월 현재는 고인이 되신 김승호 교수님의 소개로 현재의 명지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명지병원은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새롭게 확장 하기 시작하는 병원으로 응급 의학과를 처음 개설하여 현재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13명, 전공의 8명 (년차 2명)의 20년 교실로 성장하였습니다.
- 현재는 2013년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이 현재의 국제성모병원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교수직을 그만 두고 교육협력병원의 임상교수로 계속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09년 1년간의 해외 연수로 호주 멜버른의 Austin Hospital 에서 중환자실 clinical fellow ship 과정을 하였습니다. 초기 중환자의학을 하는 것이 응급의학의 새로운 분야로 생각하여 중환자 의학에 많은 교육과 연구를 하였으며 응급의학회 보다는 중환자의학회 참여와 활동을 주로 하였습니다. 현재도 대한 중환자의학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본원에서 응급중환자실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 2015년 4월 네팔 지진 현장에 국내 의료진중 처음으로 파견되어 재난 의학의 전문가인 차명일 선생님과 같이 구호활동을 한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납니다. 그 이후 응급의학의 한 분야인 재난의학의 중요성을 가져 대한 재난의학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2016년 홍보이사를 시작으로 현재는 2020년부터 대한재난의학회 이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2018년부터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센터장으로 경기도 응급의료와 관련된 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400만 경기도는 도시, 농촌, 어촌의 모든 의료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경기 남부, 북부의 응급의료취약지도 다수 있어 중앙의 응급医료를 단순화 적용하기는 힘든 지역으로 지역별, 권역 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특성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0년 2월부터 판데믹 코로나 이후 응급의료 현장의 많은 변화가 나타났으며, 특히 전반적인 사회 현상의 변화로 현장에서 직접 응급환자를 대하는 우리에게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환자 병원 미수용, 사회 법적인 어려움 등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에 맞닥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응급의료의 최전선에서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모든 학회 회원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응급 의료체계 내에서의 리더로서 역할, 그리고 병원 내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 김인병은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으로 출마하면서, 초기에 응급의학과를 만들고 발전시켜 오신 선배님들의 정신을 받들어, 현재의 우리 회원들의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여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으로 발전하는 응급의 학과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김인병에게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병 올립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제 12대 이사장 입후보자

김 인 병

정책 공약

우리는 응급의학과 의사다.

“We are EM doctors ”

미션

회원에게 긍지와 보람 제공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비전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국민과 교감하며

가슴으로 펼치는 응급의료

주요 이슈 및 현안

회원수의 증가, 관련 분야의 확장

급변하는 의료 환경

-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응급의료 환경 변화
- 국민의 응급의료 인식 변화

변화하는 응급의학 전문의

- 응급의학 전문의로서의 진료 역량, 책임감, 윤리관의 변화

정책 I

결과물을 내겠습니다

실무형 이사회로

회원과 함께 응급의학의 가치를 공유하는 실천하는 이사회

- **실무 책임형 이사회**
- **참여형 위원회 구성**
- **지역 순회 보고형 이사회**

Academic Emergency Medicine

응급의학 전문가 단체로서의 리더십 확보

- CEEM 의 SCIE 등재를 위한 노력
- KSEM POLICY
- 학술대회 강화 방안 마련
- 응급질환 표준 진료 가이드 개발 추진

정책 III

결과물을 내겠습니다

Professionalism for Emergency Physician

**응급의학 전문의로서의 역량, 책임감, 윤리관을 갖춘
인재 양성 및 환경 조성**

- 필수 수련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개정
- 타 학회와의 학술 정책적인 협의
- 전문의 수급정책 연구

정책 IV

결과물을 내겠습니다

정책 연합 · 협력 ·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응급의료 환경에 맞춘 정책

- 대외협력을 강화를 위해 기획 / 정책 / 공보 를 한 팀
- 산하단체 · 유관단체와의 정책적 연합
- 대내협력이사를 중심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통 조직 운영

정책 VI

결과물을 내겠습니다

그 외도 하겠습니다

- **응급의료미래연구소 활동 지원**
- **전공의 전문의 총조사 정례화**
- **회원의 의료분쟁 안전 장치 마련**
- **다방면으로 회원들과의 만남의 자리 마련**
-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유관단체 적극적 지원**

제 12 대 이사회는

지난 35년 대한응급의학회의 자랑스러운 역사
앞으로 35년을 학회 회원 분들과 같이 만들어보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룩한 업적을 발판으로

우리 회원들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 받는 응급의료의 리더로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보겠습니다.